

## 직업교육

### I. 직업교육 정책

#### □ 교육부, 삼성전자와 ‘꿈과 끼를 키우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2013.9.2.)

- 교육부와 삼성전자는 초·중학생의 Software(SW)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체험의 폭을 넓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SW 현장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초·중·고교의 SW학습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전국 초·중학교 300개교의 방과후교실에 SW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7년까지 5년간 총 4만 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등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논리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13년에는 교재 개발 및 수도권 30개교에 시범 실시한 후 '14년 이후부터는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300개교를 선정, 연간 10,000명의 학생에게 SW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
- SW 전문인 양성을 위한 IT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전국 150개 특성화고 중 'SW교육 거점 특성화고'를 '13년 말 지정하여 지원
  -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보급하는 한편 삼성전자·협력사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교원연수·임직원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 SW 경진대회·주니어 SW 멤버십, '찾아가는 SW 교실' 운영, '논리력·창의성 향상을 위한 SW 교육효과 제고 방안' 연구 수행 등 학생들의 SW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실시할 예정

□ **교육부, 찾아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 순회 설명회’ 개최(2013.10.16.)**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의 중학교 학교장을 대상(898명)으로 10월 16일(수) 자유학기제 정책 설명회를 개최
  - 총 4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교육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교장(3,173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 설명’에 이어 권역 내 연구학교 중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성 있는 설명회를 할 계획

□ **교육부, 2014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 입학전형 시작(2013.10.8.)**

- 전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를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작
- 최근 고졸취업 확대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선발 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증가시켜 특성화고 신입생 전체 선발인원의 10.9%를 동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추이 : '13년 2,483명(2.1%) → '14년 11,633(10.9%)
-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입학전형 시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최대 50%까지만 반영(특별전형의 경우 최대 30%)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직업적성과 희망을 중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
-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성적보다는 취업희망·적성·특기·진로목표 등에 의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목표 : 13%('15년) → 17%('16년) → 20%('17년)

□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2013.10.19.)**

-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
  -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 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
  -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개설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
-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
  -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탄력적으로 증원
  -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
  -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을 추진
  -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을 시행
  -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 시기를 조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할 계획

-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
  -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 원)를 지원하고 탄력적인 교원배치 방식 적용을 강화
-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로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되도록 5년단위 성과평가를 함.
  -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천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
  - 지방 소재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천,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특목고는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교·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

□ **교육부, 중고생 적성검사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시작(2013.10.23.)**

- 중고생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선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가 실시한 직업적성검사 등의 결과표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를 시작

- 커리어넷 검사 앱 설치 후,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3종의 메시징 앱을 이용하여 결과를 열람
- 검사종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총 4종이 제공

○ 2014년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 등의 메시징 앱을 포함하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교육부,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및 취업관광 프로그램(WHP) 5년간 연장(2013.10.30.)**

○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과 취업관광 프로그램(WHP)을 5년간 연장하는 외교부와 미국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2,000명의 한-미 대학생들이 상대국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연수, 인턴 및 취업활동,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WEST 프로그램 및 WHP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WEST 프로그램의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연수기간동안 영어 강의, 미국의 경영실무, 기업문화와 일반사무에 초점을 맞춘 월 최소 9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미국 스폰서 기관은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을 본인의 관심, 전공 및 능력에 맞춰 전문분야 인턴으로 배치함.

※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Work/English Study/Travel  
 취업관광 프로그램(WHP): Working Holiday Program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이공계 대학생 대상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2013.10.01.)**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전파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파통신측정기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
  - 2013년 10월 7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에 일일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연계형 실무교육을 실시
- 서울전파관리소는 전파혼신 탐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와 네트워크분석기, 휴대용 전파방향탐지기, 이동전파측정시스템 차량 등을 실습장에 갖추놓고 작동 원리와 처리과정을 교육할 예정

□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발표(2013.9.30.)**

- 창조경제 실현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
-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은 산학협력단 기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 기획·조정 역량제고 유도, 대학별 다양한 산협력 전략수립 촉진으로 구성됨.

표 1.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추진 과제

추진분야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산학협력단 기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산학연계 기능	- 산학협력중개센터 구축 운영 -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14. 1 ~
	기술사업화 기능	-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 근거 마련 -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13. 12 ~
	창업지원 기능	-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근거 마련 -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업무 추가	'13. 12 ~
산학협력 기획·조정 역할 제고 유도	산학협력 기획 및 연계 역할 제고	- 산학협력 코디네이션 조직 활성화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발굴 및 육성	'13. 10 ~
	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는 LINC 평가지표 개선 - 직원 교육기회 확대 및 연수 강화	'13. 11 ~
대학별 다양한 산학협력 전략수립 촉진	전략수립 방향제시	- 산학협력 전략적 포지션 맵 구성 - 비이공계 분야 산학협력 모델 개발	'14. 3 ~
	전략실행 기반구축	-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보급 - 산학협력 단장 대상 경영전략 교육	'14. 3 ~

자료: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2013.10.1. 보도자료).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2013.9.6.)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8월 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임.
-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창업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여 창업가정신을 통한 창직(創職)을 저해한다는 진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
-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대 전략과 8개 과제로 구성

표 2.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전략	과제	세부 과제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가칭)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 개발, 창업강좌 확대, 창업 융·복합전공 개설, 창업 석·박사과정 설치,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교류제 도입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창업교육 전담교원 연수확대,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 도입, 전문가 풀 확보 및 DB구축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실선창업동아리 지원, 연합창업동아리지원, 창업교육전문연구센터 설립, ‘(가칭) KC-Startup(Korea Collegian Startup) Festival’ 신설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창업도전자금 지원, 대학생 창업드림 CEO 양성, 대학보유기술 지원, 창업 보육센터 공간 제공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정보공시개선, 창업우수대학 선정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지방대학 학교기업의 학생창업지원, 지방대학 외국인창업지원센터 설치, 글로벌창업인턴십 확대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기업의 창업교육기부 참여, 창업경력인증 매뉴얼 개발·보급

자료: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9.6.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10개교 선정(2013.10.30.)**

- 교육부는 10월 30일 2013년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10개교를 선정·발표함.
  - WCC: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창조경제 및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년에 7개교 및 '12년에 4개교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 10개교를 추가하여 총 21개교를 선정함.
-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개교, 강원·충청권 6개교, 호남·제주권 5개교, 영남권 6개교로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

- 평가과정은 총 5단계로 1단계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선정, 2단계는 재정건정성 평가, 3단계 기관역량평가, 4단계 고객평가, 5단계는 3단계 기관역량평가결과와 4단계 고객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감사지적 사항등을 반영하여 상위 10개교 선정
- 금번에 WCC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대될 것임.

표 3. WCC 선정 대학교

선정연도	선정 대학교	개교 수
2011년	거제대, 대전보건대, 연암공업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제주한라대	7
2012년	경기과학기술대, 경북전문대, 아주자동차대, 한림성심대	4
2013년	광주보건대, 대림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신성대, 원광보건대, 인천재능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천안연암대	10

자료: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2013.10.30.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2013.11.4.)

-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5대 중점과제로 최종안 확정

표 4. 지방대학 육성방안 중점과제

중점 과제	세부사항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931억원, '14~'18) ·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주요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예산확대(약 800억), 연구지원 사업의 지방대 지원 비율 확대 - BK21 PLUS 지방대학 지원 비중: 24%(12년) → 35%(17년) - 학술연구 지원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44%(13년) → 50%(17년)
우수인재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	· 지방대학(원)이 지역소재 고교(대학) 졸업자(예정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지역인재 전형제도) · 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적용 ·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 추진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방대학 시설·인적자원 지역사회 개방,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금년 내 제정으로 안정적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

자료: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2013. 11. 4.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 '2013년 산학협력력 엑스포' 개최**(2013.10.22.)

- 교육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동재단,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은행,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이 공동 주관하여 10월 23일~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 “내일을 열어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산학협력력엑스포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링크(LINC) 페스티벌, 창업 준비생을 위한 학생창업 페스티벌이 열리고, 산학협력력 우수성과 전시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와 참석자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
-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창조문화교육프로그램 - 내일을 향한 두드림(Do dream)” 등이 운영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LINC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3.10.24.)**

○ 2013년 9월부터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LINC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2013년 10월 24일 시상식을 개최

※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

○ 올해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는 4년제 11점, 전문대 1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4년제 대학에서 144점(공학 98, 비공학 46)이, 전문대학에서 57점(공학 41, 비공학 16)이 출품

○ ‘LINC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의 경우, 대상은 한양대(ERICA 캠퍼스)와 울산과학대 재학생이 수상하였음.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선정 결과 확정(2013.9.10.)**

○ BK21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은 '13년부터 '19년까지 7년간 진행될 사업으로 유수의 해외 석학들을 국내로 초빙하여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석·박사급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부는 융·복합 분야 등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총 21개의 사업단(전국 16개, 지역 5개)을 선정

○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21개 사업단에는 매년 21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연간 1,000여명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과 110여명의 신진연구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계획

-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모든 사업단들이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모델을 공유·확산하도록 할 예정

□ **교육부·외교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산학협력 세미나 개최(2013.10.10.)**

- 교육부는 외교부와 공동 주관으로 2013.10.10.(목)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산학협력 세미나를 개최
- 금번 세미나에서는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FEALAC 회원국중 12개국의 정부 및 학계 인사 15명이 자국의 산학협력 정책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회원국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

※ 참고

- FEALAC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1999년에 공식 출범
- 목표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 회원국(총 36개국)
  - 동아시아(16개국): 한·중·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 중남미(2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 우리나라의 주요 역할

-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및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수행
-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FEALAC 비전그룹 설립 제안 및 제1차 비전그룹 회의 개최
- 국별협력사업 시행

□ **교육부, ‘제3차 평생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발표(2013.9.13.)**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을 마련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에서는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표 5.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13~’17) 4대 영역 및 12개 추진과제**

영역	추진과제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④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자료: 교육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 9. 13,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기본계획(‘14~’18)’ 수립 착수(2013.9.16.)**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여성과학기술인의 본격적인 경쟁

- 력 향상 및 경제활동 강화에 초점을 두고, 향후 5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이 목표로 해야 할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
- 제1차 기본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제2차 기본계획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었음.

□ **교육부, 2013년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주요 결과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월 8일 11:00시(파리현지 기준) 2013년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결과를 발표
- PIAAC은 미국·일본·독일 등 24개 참가국 성인(16~65세, 1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수리력 및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조사로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동 조사를 운영
- 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273점) 수준이고, 수리력은 263점,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평가 결과 상위수준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OECD 평균(수리력 269점,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34%)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연령간 편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서, 분석 대상을 16~24세 청년층으로 한정할 경우 3개 능력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음.
- 우리나라 직장인 중 학력과잉은 21.2%로서 OECD 평균(21.4%)수준이며, 학력 부족인 사람의 비율은 10.7%로서 OECD 평균(12.9%)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 스킬과잉은 언어능력에서 10.7%, 수리력에서 13.1%로서 OECD 평균(언어능력 10.3%, 수리력 10.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스킬부족은 언어능력 1.8%, 수리력 2.6%로서 OECD 평균(언어능력 3.6%, 수리력 3.6%)보다 낮음.

□ **교육부,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과목 발표(2013.9.5.)**

-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만 18세 이상 저학력 성인학습자의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12년부터 본격 시작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과목별 적합성 평가와 학력수준별 평가를 거친 후 검정고시 과목별로 최종 발표
- 금번에 발표된 연계 프로그램은 학력별(중입·고입·고졸)로 총 1,126개이며, 중입 6개, 고입 233개, 고졸이 887개임.
-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만으로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총 19개임.

표 6. 평생학습프로그램-검정고시 연계 과목

과목 명	가정과학	공업기술	과학	국사	기술가정	영어	농업과학
프로그램 수	122	70	31	11	153	1	25
과목 명	미술	사회	음악	일본어	기업경영	실과	도덕
프로그램 수	185	144	47	26	19	3	11
과목 명	중국어	체육	한문	해양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합계	
프로그램 수	16	60	29	14	159	1,126	

자료: 교육부,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과목(2013.9.5. 보도자료).

-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받기 위한 주요 절차
  - 학습계좌 개설(www.all.go.kr) → 면제 가능한 검정고시 연계 프로그램 검색 → 해당 프로그램 이수(과목별 90시간 이상)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 관할 시도교육청에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교육부,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2013.10.17.)**

- 교육부는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2013. 10. 17.(목) ~ 20.(일)까지 4일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

- 이번 박람회는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전국 129개 자치단체 등 총 237개 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

## II. 직업교육 통계

### ◆ 2013년 교육기본통계

#### □ 2013년 유·초·중등학교 수는 전체 20,336개교로 전년 대비 199개 증가

- 유치원은 8,678개원으로 전년대비 140개원 증가, 초등학교는 5,913개교로 18개교 증가, 중학교는 3,173개교로 11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22개교로 19개교 증가
-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 유아교육 지원 강화 및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이동 등의 영향



표 7. 유·초·중등학교 수 추이

(단위: 개교)

구분	전체 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20,336	8,678	5,913	3,173	2,322	1,525	494	138	165	-	-	250
2012	20,137	8,538	5,895	3,162	2,303	1,529	499	128	147	-	-	239
2011	19,974	8,424	5,882	3,153	2,282	1,554	499	120	109	-	-	233
2010	19,850	8,388	5,854	3,130	2,253	-	-	-	-	1,561	692	225
2009	19,756	8,373	5,829	3,106	2,225	-	-	-	-	1,534	691	223
2008	19,646	8,344	5,813	3,077	2,190	-	-	-	-	1,493	697	222
2007	19,457	8,294	5,756	3,032	2,159	-	-	-	-	1,457	702	216
2006	19,381	8,290	5,733	2,999	2,144	-	-	-	-	1,437	707	215
2005	19,167	8,275	5,646	2,935	2,095	-	-	-	-	1,382	713	216
2000	18,659	8,494	5,267	2,731	1,957	-	-	-	-	1,193	764	210
1990	19,078	8,354	6,335	2,474	1,683	-	-	-	-	1,096	587	232
1980	11,213	901	6,487	2,100	1,353	-	-	-	-	748	605	372
1970	9,496	484	5,961	1,608	889	-	-	-	-	408	481	554

- 주: 1)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3) 2013년 특성화고: 특성화고(직업) 470개교, 특성화고(대안) 24개교  
 4) 2013년 특목고: 과학고 21개교, 영재고 4개교, 예술고 27개교, 외국어고 31개교, 체육고 14개교, 국제고 7개교, 마이스터고 34개교  
 5) 특목고 중 마이스터고에 경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 일반대학은 188개교로 전년대비 1개교 감소, 전문대학은 140개교로 2개교 감소

- 대학구조개혁 영향으로 일반대학 2교가 폐교(선교청대학교, 건동대학교)하였으며, 학제변경 신설 1교, 전문대학 2교가 폐교함(동우대학 외 학제변경으로 폐교된 창신대학 포함).
- 취업자 대상 교육기관인 사내대학은 7개교로 전년대비 4개교 증가
  - '선 취업 후 진학' 문화 확산 영향,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이상 대학과정),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이상 전문대학과정) 신설

표 8.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추이

(단위: 개교)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433	188	10	2	43	1,157	140	50
2012	432	189	10	2	43	1,134	142	46
2011	434	183	10	9	41	1,126	147	44
2010	411	179	10	11	40	1,098	145	26
2009	407	177	10	12	38	1,077	146	24
2008	405	174	10	13	37	1,018	147	24
2007	408	175	11	14	36	1,006	148	24
2006	412	175	11	14	36	1,015	152	24
2005	419	173	11	18	34	1,017	158	25
2004	411	171	11	18	28	1,002	158	25
2003	405	169	11	19	25	985	158	23
2002	376	163	11	19	18	927	159	6
2001	374	162	11	19	18	887	158	6
2000	372	161	11	19	17	812	158	6
1990	265	107	11	6	-	298	117	24
1980	237	85	11	-	-	121	128	13
1970	168	71	16	-	-	-	65	16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폐교 및 분교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3)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4) 대학원은 대학부설대학원으로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7,187,384명으로 전년대비 197,404명 (2.7%) 감소

○ '13년의 초등학생 수는 전년대비 167,995명(5.7%) 감소, 중학생 수는 44,905명(2.4%) 감소, 고등학생 수는 26,784명(1.4%) 감소

- 저출산에 따른 취학적령인구의 감소 영향

○ '1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한 유치원 원아 수는 '13년 658,188명으로

전년대비 44,439명(7.2%) 증가

- 누리과정 도입 · 확대 등 유아교육 지원 강화 영향

표 9.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체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7,187,384	658,188	2,784,000	1,804,189	1,893,303	1,356,070	320,374	67,099	149,760	-	-	47,704
2012	7,384,788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1,381,130	330,797	64,468	143,692	-	-	49,863
2011	7,601,338	564,834	3,132,477	1,910,572	1,943,798	1,425,882	340,227	63,727	113,962	-	-	49,657
2010	7,822,882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	-	-	1,496,227	466,129	-	48,047
2009	8,031,964	537,361	3,474,395	2,006,972	1,965,792	-	-	-	1,484,966	480,826	-	47,444
2008	8,202,037	537,822	3,672,207	2,038,611	1,906,978	-	-	-	1,419,486	487,492	-	46,419
2007	8,324,217	541,550	3,829,998	2,063,159	1,841,374	-	-	-	1,347,363	494,011	-	48,136
2006	8,368,339	545,812	3,925,043	2,075,311	1,775,857	-	-	-	1,281,508	494,349	-	46,316
2005	8,384,506	541,603	4,022,801	2,010,704	1,762,896	-	-	-	1,259,792	503,104	-	46,502
2000	8,549,865	545,263	4,019,991	1,860,539	2,071,468	-	-	-	1,324,482	746,986	-	52,604
1990	9,965,954	414,532	4,868,520	2,275,751	2,283,806	-	-	-	1,473,155	810,651	-	123,345
1980	10,044,891	66,433	5,658,002	2,471,997	1,696,792	-	-	-	932,605	764,187	-	151,667
1970	7,793,585	22,271	5,749,301	1,318,808	590,382	-	-	-	315,367	275,015	-	112,823

주: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 중·고교 진학률은 높은 비율 유지, 고등학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

○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각각 99.9%와 99.7%로 전년과 동일

○ 고등학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7%로 나타나 전년대비 0.6%p 감소

표 10.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추이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고등교육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졸업자	등록자 기준	
								학생수	진학률
2013	602,343	602,200	99.98	635,827	633,990	99.7	631,197	446,474	70.7
2012	597,426	597,296	99.98	645,975	644,055	99.7	636,724	453,899	71.3
2011	617,533	617,406	99.98	668,224	666,109	99.7	648,468	469,961	72.5
2010	647,572	647,458	99.98	668,575	666,509	99.7	633,539	477,384	75.4
2009	657,402	657,293	99.98	674,864	672,393	99.6	576,298	448,224	77.8
2008	680,804	680,648	99.98	690,438	688,092	99.7	581,921	448,321	77.0
2007	682,911	682,685	99.97	677,547	674,922	99.6	571,357	437,180	76.5
2006	691,774	691,657	99.98	612,936	611,496	99.8	568,055	422,693	74.4
2005	707,126	707,013	99.98	616,499	614,900	99.7	569,272	417,835	73.4
2000	614,759	614,494	99.96	631,398	628,644	99.6	764,712	473,803	62.0
1990	763,694	761,989	99.78	835,699	799,549	95.7	761,922	206,790	27.1

- 주: 1)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년도 졸업자)×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도부터 국외 진학자가 포함됨).  
 5) 진학자 기준: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6) 등록자 기준 진학률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대학 입학자 수를 기준으로 대체한 진학률을 추가 기재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이 0.9%p 상승

○ 군 입대자나 무직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음.

표 11.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추이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미상		입대자		무직	
		학생 수	진학률	학생 수	취업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3	631,197	446,474	70.7	55443	30.2	28,729	4.6	1,389	0.2	99,162	15.7
2012	636,724	453,899	71.3	53,060	29.3	28,139	4.4	1,573	0.2	100,053	15.7
2011	648,468	469,961	72.5	41,057	23.3	43,953	6.8	1,940	0.3	91,557	14.1
2010	633,539	477,384	75.4	34,182	25.9	24,670	3.9	1,405	0.2	73,000	11.5
2009	576,298	448,224	77.8	28,358	27.6	6,558	1.1	1,365	0.2	67,774	11.8
2008	581,921	448,321	77.0	33,470	35.9	5,546	1.0	1,175	0.2	54,221	9.3

(표 계속)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미상		입대자		무직	
		학생 수	진학률	학생 수	취업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07	571,357	437,180	76.5	35,680	36.5	14,239	2.5	695	0.1	47,778	8.4
2006	568,055	422,693	74.4	47,118	46.6	16,962	3.0	699	0.1	37,028	6.5
2005	569,272	417,835	73.4	52,852	52.3	21,613	3.8	734	0.1	26,565	4.7

주: 1)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년도 졸업자) × 100  
 2) 취업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3) 비율 = (당해년도 해당 구분 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100  
 4)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05년부터 국외 진학자가 포함)  
 5) 현재 대학 등록자를 기준으로 진학률 산출

### □ 학제별 졸업률 추이는 초등학교 · 중학교 입학자 98% 이상 졸업, 고등학교 입학자 95% 이상 졸업

○ 입학자 대비 졸업자의 비율은 초등학교 98.6%, 중학교 98.7%, 고등학교 95.1%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3%p 증가, 중학교 0.4%p 감소, 고등학교 0.1%p 증가

표 12.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졸업률 추이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자	졸업자	졸업률	입학자	졸업자	졸업률	입학자	졸업자	졸업률
2013	610,769	602,343	98.6	644,140	635,827	98.7	663,457	631,197	95.1
2012	607,902	597,426	98.3	652,115	645,975	99.1	670,486	636,724	95.0
2011	624,511	617,533	98.9	675,779	668,224	98.9	681,444	648,468	95.2
2010	652,538	647,572	99.2	679,762	668,575	98.4	669,850	633,539	94.6
2009	663,100	657,402	99.1	690,037	674,864	97.8	608,457	576,298	94.7
2008	686,315	680,804	99.2	703,800	690,438	98.1	611,396	581,921	95.2
2007	687,047	682,911	99.4	689,414	677,547	98.3	597,120	571,357	95.7
2006	669,609	691,774	103.3	623,842	612,936	98.3	593,922	568,055	95.6
2005	709,399	707,126	99.7	626,455	616,499	98.4	600,245	569,272	94.8

주 : 졸업률 = 졸업자수 / 3(6)년전 입학자수 × 100

□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전년대비 3.4% 감소**

-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28,148명(3.4%) 감소한 788,994명으로 그 동안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7,426명(2.0%), 11,245명(4.7%) 감소한 반면, 대학원의 입학자 수는 전년대비 744명(0.6%) 증가

표 13.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788,994	365,515	3,892	2,944	126,860	227,707	62,076
2012	817,142	372,941	3,923	2,718	126,116	238,952	72,492
2011	832,631	361,686	4,395	15,582	126,872	249,693	74,403
2010	817,225	358,511	4,862	17,572	126,958	249,144	60,178
2009	791,025	347,750	5,234	19,396	120,088	242,525	56,032
2008	786,003	342,916	5,459	22,374	113,371	249,291	52,592
2007	786,757	342,250	5,741	22,304	113,956	255,395	47,111
2006	775,605	335,581	6,235	22,061	110,912	254,433	46,383
2005	769,034	326,284	6,188	28,197	108,255	251,283	48,827
2004	773,741	329,509	5,783	28,444	103,257	259,182	47,566
2003	787,564	321,116	5,166	29,720	104,488	275,318	51,756
2002	819,052	320,534	4,971	31,896	101,837	311,304	48,510
2001	839,516	327,031	4,959	33,870	99,544	322,687	51,425
2000	819,779	321,399	5,075	33,240	94,079	318,135	47,851

-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기타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포함됨.  
 3) 대학원은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4) 입학자 수는 정원내·정원의 입학자가 모두 포함됨.  
 5) 입학자는 2013년 3월 입학자(신입생)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 입학자는 2013년 3월과 2012년 9월 입학자 대상임.  
 6)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20개교가 2011년부터 정식 조사되어 학생 수에 포함됨.

□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전년대비 19,068명(0.5%) 감소**

○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3,709,734명으로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2년부터 소폭 감소

○ 일반대학과 대학원의 재적학생 수는 전년대비 각각 16,338명(0.8%), 278명(0.08%)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전년대비 12,167명(1.6%) 감소

표 14.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3,709,734	2,120,296	17,500	76,377	329,822	757,721	408,018
2012	3,728,802	2,103,958	18,789	95,533	329,544	769,888	411,090
2011	3,735,706	2,065,451	20,241	122,916	329,933	776,738	420,427
2010	3,644,158	2,028,841	21,618	133,736	316,633	767,087	376,243
2009	3,591,088	1,984,043	22,879	143,368	306,471	760,929	373,398
2008	3,562,844	1,943,437	24,116	161,876	301,412	771,854	360,149
2007	3,558,711	1,919,504	25,834	169,862	296,576	795,519	351,416
2006	3,545,774	1,888,436	25,881	180,435	290,029	817,994	342,999
2005	3,548,728	1,859,639	25,141	188,753	282,225	853,089	339,881
2004	3,555,115	1,836,649	23,335	189,035	276,918	897,589	331,589
2003	3,558,111	1,808,539	23,552	191,455	272,331	925,963	336,271
2002	3,577,447	1,771,738	23,259	187,040	262,867	963,129	369,414
2001	3,500,560	1,729,638	21,418	180,068	243,270	952,649	373,517
2000	3,363,549	1,665,398	20,907	170,622	229,437	913,273	363,912
1990	1,691,681	1,040,166	15,960	51,970	87,163	323,825	172,597
1980	647,505	402,979	9,425	-	33,939	165,051	36,111
1970	201,436	146,414	12,190	-	6,640	33,483	2,709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3)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4) 폐교의 잔류 재적학생수가 포함됨.  
 5)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20개교가 2011년부터 정식 조사되어 학생 수에 포함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8,044명(1.2%) 감소**

- 일반대학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3,775명(1.3%) 감소, 전문대학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3,651명(1.9%) 감소
- 대학원의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555명(0.6%) 증가

표 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657,013	294,952	5,055	19,075	95,563	184,817	57,551
2012	665,057	298,727	5,225	20,781	95,008	188,468	56,848
2011	653,118	293,967	5,574	21,339	91,048	188,216	52,974
2010	628,689	279,603	5,956	22,236	87,870	190,033	42,991
2009	636,628	279,059	6,346	24,252	85,597	199,421	41,953
2008	646,092	282,670	6,963	25,227	82,293	207,741	41,198
2007	642,987	277,858	5,929	26,490	79,174	215,040	38,496
2006	638,259	270,546	6,129	26,398	78,743	222,973	33,470
2005	634,523	268,833	5,595	27,397	77,041	228,763	26,894
2004	627,270	267,058	7,381	26,221	74,728	226,886	24,996
2003	633,730	258,126	5,499	25,140	71,499	246,789	26,677
2002	602,755	244,852	5,072	24,653	63,749	239,114	25,315
2001	584,340	239,702	5,195	24,389	59,330	232,972	22,752
2000	542,184	214,498	5,233	21,266	53,379	223,489	24,319

-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기타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포함됨.  
 3) 대학원은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4) 졸업자는 2012년 8월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5)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20개교가 2011년부터 정식 조사되어 학생 수에 포함됨.



□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173명(0.2%), 382명(3.1%) 증가

○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 중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32,499명(39.2%), 전문·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50,439명(60.8%)임.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1,736명으로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93.0%를 차지

표 16. 대학원 학위취득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대학원(전체)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2013	95,563	82,938	12,625	44,235	32,499	11,736	51,328	50,439	889
2012	95,008	82,765	12,243	44,489	33,036	11,453	50,519	49,729	790
2011	91,048	79,403	11,645	42,715	31,725	10,990	48,333	47,678	655
2010	87,870	77,328	10,542	39,397	29,514	9,883	48,473	47,814	659
2009	85,597	75,685	9,912	38,073	28,717	9,356	47,524	46,968	556
2008	82,293	72,924	9,369	36,158	27,208	8,950	46,135	45,716	419
2007	79,174	70,092	9,082	35,033	26,276	8,757	44,141	43,816	325
2006	78,743	69,834	8,909	34,875	26,223	8,652	43,868	43,611	257
2005	77,041	68,439	8,602	36,098	27,654	8,444	40,943	40,785	158
2004	74,728	66,720	8,008	35,755	27,822	7,933	38,973	38,898	75
2003	71,499	64,259	7,240	34,275	27,105	7,170	37,224	37,154	70
2002	63,749	56,991	6,758	33,659	26,974	6,685	30,090	30,017	73
2001	59,330	53,109	6,221	33,279	27,071	6,208	26,051	26,038	13
2000	53,379	47,226	6,153	31,559	25,407	6,152	21,820	21,819	1

주: 1)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의 전문, 특수 대학원이 포함됨.

2)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2012년 8월, 2013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2,686명으로 전년대비 6,621명 (1.4%) 증가

- 학제별 교원 수는 '12년 대비 유치원 3,891명(9.2%), 초등학교 150명(0.1%), 중학교 1,686명(1.5%), 고등학교 461명(0.3%) 증가
- 유치원 교원의 큰 폭 증가는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 유아교육 지원 강화 영향

표 17. 유·초·중등학교 교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체 교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482,686	46,126	181,585	112,690	133,414	89,469	26,759	6,678	10,508	-	-	8,871
2012	476,065	42,235	181,435	111,004	132,953	89,538	27,283	6,289	9,843	-	-	8,438
2011	469,136	38,662	180,623	110,658	131,083	90,464	27,327	5,801	7,491	-	-	8,110
2010	455,907	36,461	176,754	108,781	126,423	-	-	-	-	90,735	35,688	7,488
2009	452,019	35,415	175,068	109,075	125,074	-	-	-	-	88,997	36,077	7,387
2008	445,594	34,601	172,190	108,700	122,906	-	-	-	-	86,500	36,406	7,197
2007	435,718	33,504	167,182	107,986	120,211	-	-	-	-	83,662	36,549	6,835
2006	427,137	32,096	163,645	106,919	117,933	-	-	-	-	81,183	36,750	6,544
2005	417,710	31,033	160,143	103,835	116,411	-	-	-	-	79,158	37,253	6,288
2000	370,245	28,012	140,000	92,589	104,351	-	-	-	-	63,374	40,977	5,293
1990	342,770	18,511	136,800	89,719	92,683	-	-	-	-	58,074	34,609	5,057
1980	232,643	3,339	119,064	54,858	50,948	-	-	-	-	27,480	23,468	4,434
1970	158,472	1,660	101,095	31,207	19,854	-	-	-	-	9,845	10,009	4,656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방송통신중·고 제외).  
 2)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시간강사는 제외됨.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는 86,656명으로 전년대비 1,746명(2.1%) 증가

- 일반대학 전임교원 수는 전년대비 1,768명(2.6%)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 전임교원 수는 전년대비 63명(0.5%) 감소
- 전문대학 전임교원 수 감소는 동우대학, 창신대학(일반대학 전환) 폐교 영향

표 18.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 추이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타
2013	86,656	69,802	835	316	13,015	2,688
2012	84,910	68,034	842	286	13,078	2,670
2011	82,190	63,905	821	1,946	12,891	2,627
2010	77,697	61,020	813	2,018	12,530	1,316
2009	75,469	58,848	805	2,144	12,451	1,221
2008	73,072	56,803	812	2,201	12,100	1,156
2007	70,957	55,117	855	2,252	11,685	1,048
2006	69,201	53,388	857	2,175	11,857	924
2005	66,862	50,432	798	2,720	12,027	885
2004	64,019	48,037	756	2,588	11,872	766
2003	61,012	45,272	740	2,655	11,974	371
2002	59,750	44,177	721	2,543	12,156	153
2001	58,532	43,309	710	2,456	11,897	160
2000	56,903	41,943	698	2,390	11,707	165
1990	42,911	33,340	694	855	7,382	640
1980	20,900	14,696	564	-	5,488	152
1970	10,270	7,779	660	-	1,637	194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교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금교수가 포함됨.  
 3)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은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이 포함됨(2003년 이전 미포함).  
 4)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5)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20개교가 2011년부터 정식 조사되어 교원 수에 포함됨.

**□ 석·박사학위 소지 유·초·중·고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지속 신장**

- 전체 유·초·중·고 교원의 32.3%(152,865명)가 석·박사학위 소지
- 기타학교를 제외한 유·초·중·고 교원 473,815명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은 147,734명(31.2%),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은 5,131명(1.1%)

표 19. 석·박사 학위 이상 교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	석사	147,734(31.2)	6,235(13.5)	49,484(27.3)	40,858(36.3)	51,157(38.3)
	박사	5,131(1.1)	347(0.8)	1,133(0.6)	1,109(1.0)	2,542(1.9)
2012	석사	143,917(30.8)	5,823(13.8)	47,765(26.3)	39,811(35.9)	50,518(38.0)
	박사	4,852(1.0)	310(0.7)	1,032(0.6)	1,042(0.9)	2,468(1.9)
2011	석사	138,132(30.0)	5,429(14.0)	45,393(25.1)	38,577(34.9)	48,733(37.2)
	박사	4,544(1.0)	277(0.7)	972(0.5)	949(0.9)	2,346(1.8)
2010	석사	129,641(28.9)	4,853(13.3)	42,241(23.9)	36,704(33.7)	45,843(36.3)
	박사	4,106(0.9)	231(0.6)	822(0.5)	878(0.8)	2,175(1.7)
2009	석사	123,968(27.9)	4,485(12.7)	39,451(22.5)	35,506(32.6)	44,526(35.6)
	박사	3,588(0.8)	203(0.6)	659(0.4)	769(0.7)	1,957(1.6)
2008	석사	118,371(27.0)	4,125(11.9)	37,135(21.6)	34,315(31.6)	42,796(34.8)
	박사	3,360(0.8)	172(0.5)	608(0.4)	725(0.7)	1,855(1.5)
2007	석사	111,557(26.0)	3,711(11.1)	34,424(20.6)	32,736(30.3)	40,686(33.8)
	박사	3,110(0.7)	169(0.5)	561(0.3)	667(0.6)	1,713(1.4)
2006	석사	103,481(24.6)	3,251(10.1)	30,971(18.9)	30,676(28.7)	38,583(32.7)
	박사	2,757(0.7)	141(0.4)	489(0.3)	574(0.5)	1,553(1.3)
2005	석사	94,352(22.9)	2,782(0.9)	27,355(17.1)	28,046(27.0)	36,169(31.1)
	박사	2,499(0.6)	111(0.4)	438(0.3)	476(0.5)	1,474(1.3)

주: 1) ( )안은 학제별 전체 교원 대비 비율(기타학교 교원 수 제외)

2)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시간강사는 제외됨.

###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의 10명 중 8명이 박사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의 학위 현황은 박사 70,030명, 석사 14,123명, 학사 2,416명으로 나타남.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58,923명 (84.4%), 8,307명(63.8%)임.

표 20. 석·박사 학위 이상 교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고등교육기관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고등교육 기관	2013	86,656	70,030(80.8)	14,123(16.3)	2,416(2.8)	87(0.1)
	2012	84,910	68,158(80.3)	14,204(16.7)	2,443(2.9)	105(0.1)
	2011	82,190	66,015(80.3)	13,721(16.7)	2,368(2.9)	86(0.1)
	2010	77,697	62,608(80.6)	12,802(16.5)	2,187(2.8)	100(0.1)
	2009	75,469	60,966(80.8)	12,464(16.5)	1,969(2.6)	70(0.1)
	2008	73,072	58,604(80.2)	12,527(17.1)	1,855(2.5)	86(0.1)
	2007	70,957	56,804(80.1)	12,395(17.5)	1,675(2.4)	83(0.1)
	2006	69,201	54,824(79.2)	12,689(18.3)	1,540(2.2)	148(0.2)
일반 대학	2013	69,802	58,923(84.4)	9,058(13.0)	1,780(2.6)	41(0.1)
	2012	68,034	57,236(84.1)	8,986(13.2)	1,767(2.6)	45(0.1)
	2011	63,905	54,015(84.5)	8,215(12.9)	1,651(2.6)	24(0.04)
	2010	61,020	51,351(84.2)	8,074(13.2)	1,555(2.5)	40(0.1)
	2009	58,848	49,749(84.5)	7,699(13.1)	1,382(2.3)	18(0.0)
	2008	56,803	47,812(84.2)	7,637(13.4)	1,323(2.3)	31(0.1)
	2007	55,117	46,270(83.9)	7,567(13.7)	1,245(2.3)	35(0.1)
	2006	53,388	44,631(83.6)	7,527(14.1)	1,127(2.1)	103(0.2)
전문 대학	2013	13,015	8,307(63.8)	4,123(31.7)	547(4.2)	38(0.3)
	2012	13,078	8,187(62.6)	4,252(32.5)	588(4.5)	51(0.4)
	2011	12,891	7,978(61.9)	4,272(33.1)	591(4.6)	50(0.4)
	2010	12,530	7,728(61.7)	4,174(33.3)	570(4.5)	58(0.5)
	2009	12,451	7,610(61.1)	4,224(33.9)	562(4.5)	55(0.4)
	2008	12,100	7,271(60.1)	4,293(35.5)	487(4.0)	49(0.4)
	2007	11,685	7,008(60.0)	4,251(36.4)	381(3.3)	45(0.4)
	2006	11,857	6,882(58.0)	4,564(38.5)	369(3.1)	42(0.4)

주: 1) 학위별 전임교원 비율 = (해당 학위 교원 수 / 총 교원 수) × 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3) 교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금교수가 포함됨.

4) 일반대학은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이 포함됨.

5) 기타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유·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유치원 0.2명,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2명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 14.3명, 초 15.3명, 중 16.0명, 고 14.2명

○ '00년 대비 유치원 5.2명, 초등학교 13.4명,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5.7명이 감소하여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표 21. 유·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14.3	15.3	16.0	14.2	15.2	12.0	10.0	14.3	-	-
2012	14.5	16.3	16.7	14.4	15.4	12.1	10.3	14.6	-	-
2011	14.6	17.3	17.3	14.8	15.8	12.5	11.0	15.2	-	-
2010	14.8	18.7	18.2	15.5	-	-	-	-	16.5	13.1
2009	15.2	19.8	18.4	15.7	-	-	-	-	16.7	13.3
2008	15.5	21.3	18.8	15.5	-	-	-	-	16.4	13.4
2007	16.2	22.9	19.1	15.3	-	-	-	-	16.1	13.5
2006	17.0	24.0	19.4	15.1	-	-	-	-	15.8	13.5
2005	17.5	25.1	19.4	15.1	-	-	-	-	15.9	13.5
2000	19.5	28.7	20.1	19.9	-	-	-	-	20.9	18.2
1990	22.4	35.6	25.4	24.6	-	-	-	-	25.4	23.4
1980	19.9	47.5	45.1	33.3	-	-	-	-	33.9	32.6
1970	13.4	56.9	42.3	29.7	-	-	-	-	32.0	27.5

주: 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적 학생 수/교원 수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0.6명 감소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5.4명, 37.2명으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보다 11.8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일반대학은 0.3명 감소, 전문대학은 0.5명 감소

표 2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13	86,656	2,625,220	30.3	69,802	1,770,332	25.4	13,015	484,299	37.2
2012	84,910	2,625,187	30.9	68,034	1,749,491	25.7	13,078	492,681	37.7
2011	82,190	2,623,311	31.9	63,905	1,704,873	26.7	12,891	503,493	39.1
2010	77,697	2,537,670	32.7	61,020	1,649,692	27.0	12,530	494,018	39.4
2009	75,469	2,494,002	33.0	58,848	1,607,021	27.3	12,451	488,913	39.3
2008	73,072	2,479,827	33.9	56,803	1,574,664	27.7	12,100	503,397	41.6
2007	70,957	2,476,487	34.9	55,117	1,558,638	28.3	11,685	519,698	44.5
2006	69,201	2,445,867	35.3	53,388	1,524,746	28.6	11,857	527,614	44.5
2005	66,862	2,413,896	36.1	50,432	1,490,253	29.5	12,027	530,149	44.1

주: 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2) 교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됨.

3)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에는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현황이 포함됨.

◆ 2013년 대학정보공시

□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58.9%)은 전년 대비 2.0%p 증가

-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전임교원 확충 노력으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꾸준히 증가
  -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8.1%로 전년(56.2%) 대비 1.9%p 증가하였고, 사립대학은 59.1%로 전년(57.1%) 대비 2.0%p 증가
  - 수도권대학은 54.9%로 전년(52.7%) 대비 2.2%p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대학은 61.1%로 전년(59.2%) 대비 1.9%p 증가

표 23. 2013년 2학기 교원 강의담당비율

(단위 : 학점, %, %p)

구분	2013년 2학기					201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증감 (A-B)	
	전임교원 담당학점 (A)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담당학점 (B)		
		겸임교원 담당학점	초빙교원 담당학점	시간강사 담당학점	기타교원 담당학점			
전체 (172개교)	389,844.7	29,052.2	26,441.9	198,072.1	18,584.0	371,653.0	2.0	
	(58.9)	(4.4)	(4.0)	(29.9)	(2.8)	(56.9)		
설 립	국·공립 (24개교)	80,497.0	2,666.7	6,809.9	44,102.8	4,519.9	78,714.7	1.9
		(58.1)	(1.9)	(4.9)	(31.8)	(3.3)	(56.2)	
	사립 (148개교)	309,347.7	26,385.5	19,632.0	153,969.3	14,064.1	292,938.3	2.0
		(59.1)	(5.0)	(3.8)	(29.4)	(2.7)	(57.1)	
소 재 지	수도권 (66개교)	129,280.6	10,666.5	8,108.8	77,793.1	9,440.7	121,599.0	2.2
		(54.9)	(4.5)	(3.5)	(33.1)	(4.0)	(52.7)	
	비수도권 (106개교)	260,564.1	18,385.7	18,333.1	120,279.0	9,143.3	250,054.0	1.9
		(61.1)	(4.3)	(4.3)	(28.2)	(2.1)	(59.2)	

자료기준일 : '13.10.

□ 4년제 일반대학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의 비율(41.6%)은 전년대비 1.9%p 증가

○ 대학 강의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13년도 2학기 개설 총 강좌수는 279,717건으로 전년(276,965건)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강좌규모별로 살펴보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6%로 전년 (39.7%) 대비 1.9%p 증가

- 21~50명 이하 중규모 강좌는 43.9%로 전년(44.7%) 대비 0.8%p 감소,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는 14.5%로 전년(15.6%) 대비 1.1%p 감소하였음.



표 24. 2013년 2학기 강좌 규모별 강좌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3년도 2학기				2012년도 2학기				총강좌수 증감률 (A-B/B)×100	
	20명이하	21~50명	51명이상	총강좌수 (A)	20명이하	21~50명	51명이상	총강좌수 (B)		
전체 (172개교)	116,224 (41.6)	122,825 (43.9)	40,668 (14.5)	279,717	109,866 (39.7)	123,776 (44.7)	43,323 (15.6)	276,965	1.0	
설립	국·공립 (24개교)	23,181 (40.1)	26,742 (46.3)	7,862 (13.6)	57,785	23,828 (40.5)	27,004 (45.9)	8,031 (13.6)	58,863	△1.8
	사립 (148개교)	93,043 (41.9)	96,083 (43.3)	32,806 (14.8)		221,932	86,038 (39.4)	96,772 (44.4)		
소재지	수도권 (66개교)	42,358 (43.0)	40,294 (40.8)	15,990 (16.2)	98,642	39,137 (40.1)	41,149 (42.1)	17,348 (17.8)	97,634	1.0
	비수도권 (106개교)	73,866 (40.8)	82,531 (45.6)	24,678 (13.6)		181,075	70,729 (39.4)	82,627 (46.1)		

자료기준일 : '13.10.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 수는 전년대비 46.7%, 50.9%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12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40,242명으로 전년 (27,440명)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기업체수는 24,208개로 전년(16,044개) 대비 50.9% 증가

- 국·공립대학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수는 10,542명, 5,954개로 전년(7,950명, 4,007개) 대비 각각 32.6%, 48.6% 증가
- 사립대학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수는 29,700명, 18,254개로 전년(19,490명, 12,037개) 대비 각각 52.4%, 51.6% 증가
- 수도권대학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수는 11,991명, 8,047개로 전년(9,640명, 6,338개) 대비 각각 24.4%, 27.0% 증가
- 비수도권대학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수는 28,251명, 16,161개로 전년(17,800명, 9,706개) 대비 각각 58.7%, 66.5% 증가

표 25. 2012년 현장실습 운영현황

(단위: 명, 개, %)

구분		현장실습 이수 학생 현황			현장실습 참여기업체 수		
		2012	2011	증감률	2012	2011	증감률
전체 (172개교)		40,242	27,440	46.7	24,208	16,044	50.9
설 립	국·공립 (24개교)	10,542	7,950	32.6	5,954	4,007	48.6
	사립 (148개교)	29,700	19,490	52.4	18,254	12,037	51.6
소 재 지	수도권 (66개교)	11,991	9,640	24.4	8,047	6,338	27.0
	비수도권 (106개교)	28,251	17,800	58.7	16,161	9,706	66.5

자료기준일 : '13.10.

□ 4년제 일반대학의 기술이전 실적 및 수입은 전년 대비 13.6%, 17.8%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12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796건, 수입료는 454.2억 원으로 전년(1,581건, 385.6억) 대비 각각 13.6%,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의 기술이전은 580건, 수입료 129.9억 원으로 전년(566건, 125.7억원) 대비 각각 2.5%, 3.3% 증가
- 사립대학의 기술이전은 1,216건, 수입료 324.2억 원으로 전년(1,015건, 259.8억) 대비 각각 19.8%,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대학의 기술이전은 834건, 수입료 305.7억 원으로 전년(725건, 262.7억원) 대비 각각 15.0%, 16.4% 증가
- 비수도권대학의 기술이전은 962건, 수입료 148.5억 원으로 전년(856건, 122.9억원) 대비 각각 12.4%, 20.9% 증가하였음.

표 26. 2012년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

구분		기술이전					
		건수			수입료		
		2012	2011	증감률	2012	2011	증감률
전체 (172개교)		1,796	1,581	13.6	45,415	38,557	17.8
설 립	국·공립 (24개교)	580	566	2.5	12,993	12,574	3.3
	사립 (148개교)	1,216	1,015	19.8	32,422	25,983	24.8
소 재 지	수도권 (66개교)	834	725	15.0	30,566	26,270	16.4
	비수도권 (106개교)	962	856	12.4	14,849	12,287	20.9

자료기준일: '12 회계연도

□ 일반대학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4%, 30.0%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12년 국내 특허출원은 총 11,288건, 해외 특허출원은 2,223건으로 전년(10,512건, 1,710건) 대비 각각 7.4%,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은 국내 3,769건, 해외 677건으로 전년(3,586건, 460건) 대비 각각 5.1%, 47.2% 증가
- 사립대학은 국내 7,519건, 해외 1,546건으로 전년(6,926건, 1,250건) 대비 각각 8.6%,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대학은 국내 5,896건, 해외 1,408건으로 전년(5,831건, 1,052건) 대비 각각 1.1%, 33.8% 증가
- 비수도권대학은 국내 5,392건, 해외 815건으로 전년(4,681건, 658건) 대비 각각 15.2%,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2012년 특허출원 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기술이전					
		국내 특허 출원			해외 특허 출원		
		2012	2011	증감률	2012	2011	증감률
전체 (172개교)		11,288	10,512	7.4	2,223	1,710	30.0
설 립	국·공립 (24개교)	3,769	3,586	5.1	677	460	47.2
	사립 (148개교)	7,519	6,926	8.6	1,546	1,250	23.7
소 재 지	수도권 (66개교)	5,896	5,831	1.1	1,408	1,052	33.8
	비수도권 (106개교)	5,392	4,681	15.2	815	658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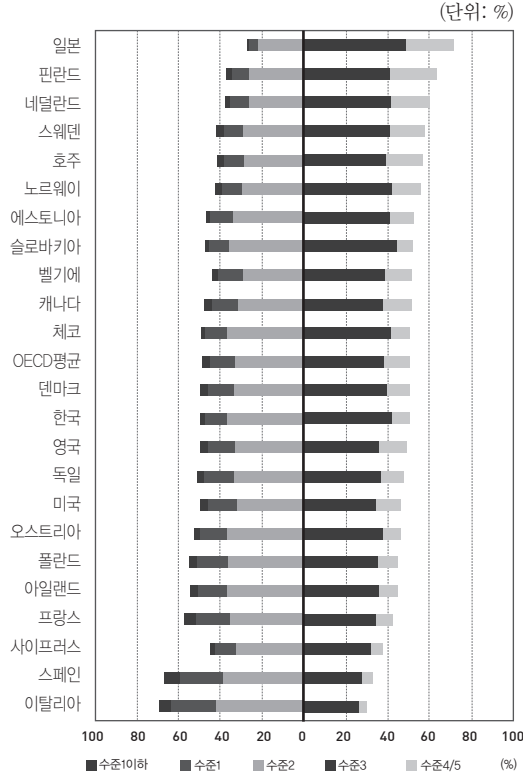
자료기준일: '12 회계연도

◆ 201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 273점과 동일하며 이는 캐나다,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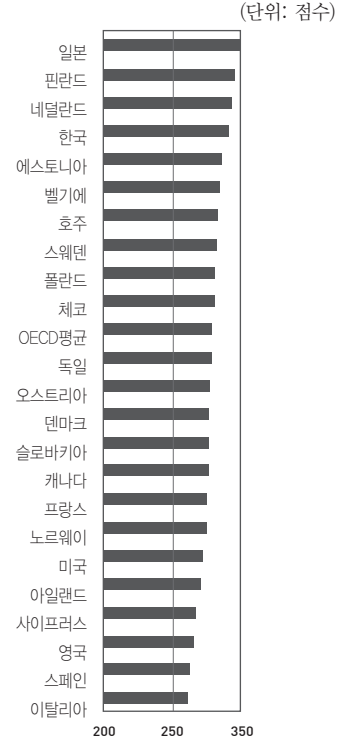
- 언어능력을 수준별로 비교했을 때, 상위 수준(3, 4, 5 수준)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OECD는 50.0%이며, 한국은 49.8%로 거의 평균 수준
- 하지만 16~24세 젊은 세대로 한정하면, 한국의 언어능력은 상위권으로 핀란드 및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

그림 1. 16~65세 언어능력 수준별 분포



출처: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2.1

그림 2. 16~24세 언어능력 평균점수



출처: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2.3a

□ 16~65세 한국 성인의 수리력은 263점으로 OECD 평균 269점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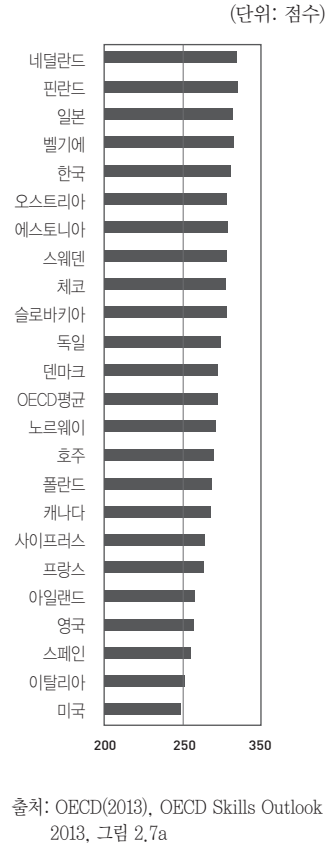
○ 수리력 수준이 3이상인 성인의 비율은 OECD는 46.9%인데 비해 한국은 41.4%로 평균보다 낮음.

○ 16~65세 한국 성인의 수리력 평균은 캐나다 및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16~24세 젊은 성인층으로 한정해서 수리력 평균을 비교하면 한국은 281점으로 상위권에 속함.

그림 3. 16~65세 수리력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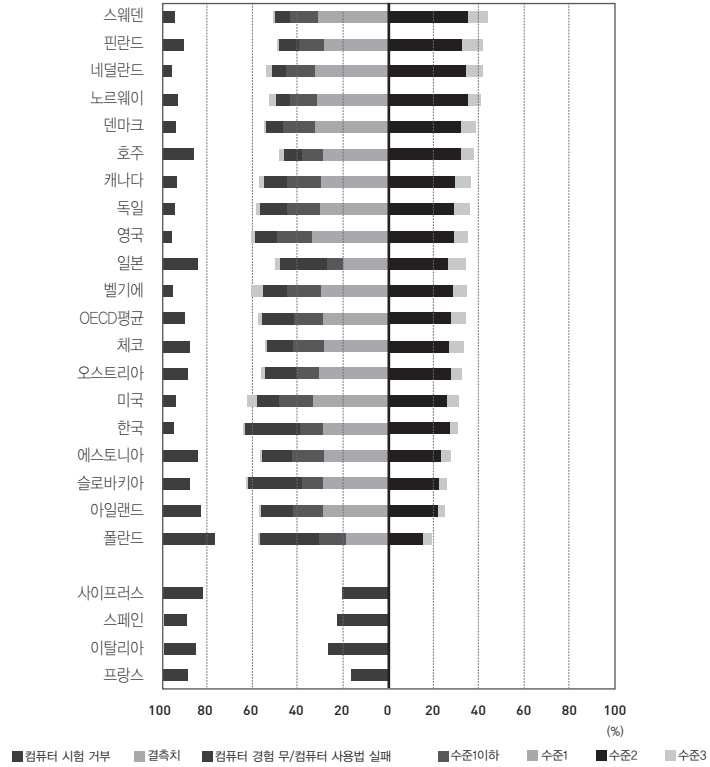
그림 4. 16~24세 수리력 평균



□ 한국 성인 중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상위 수준(2수준과 3수준)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 34%에 못 미치는 30.4%로 나타남.

○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15.5%로서 OECD 평균 9.3%보다 높음.

그림 5. 16~65세 컴퓨터 경험 및 문제해결력 수준별 분포



주 : 사이프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출처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2.10a

□ 직장인의 학력과잉은 21.2%로서 OECD 평균(21.4%) 수준이며, 학력부족인 사람의 비율은 10.7%로서 OECD 평균(12.9%)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스킬과잉이 OECD 평균(언어능력 기준 10.3%, 수리력 기준 10.0%)보다 높은 10.7%와 13.1%이며, 스킬부족은 OECD 평균(언어능력 기준 3.6%, 수리력 기준 3.6%)보다 낮은 1.8%와 2.6%로 나타남.

표28.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한국 및 OECD 평균

구분	학력 불일치			스킬 불일치					
				언어능력			수리력		
	학력 과잉	학력 부족	적정 학력	스킬 과잉	스킬 부족	적정 스킬	스킬 과잉	스킬 부족	적정 스킬
한국	21.2	10.7	68.1	10.7	1.8	87.5	13.1	2.6	84.4
OECD평균	21.4	12.9	65.8	10.3	3.6	86.2	10.0	3.6	86.4

출처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 한국 청년층의 언어능력 · 수리력 ·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역량이 최상위의 수준

- 한국의 16~24세 언어능력은 OECD 평균 280점보다 높은 293점이고, 수리력도 평균보다 10점 높은 281점
- 16~24세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상위 수준(2, 3수준)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 50.7% 보다 높은 63.5%로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음.

표29.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한국 및 OECD 평균

(단위: 점수, %)

구분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16~65세	16~24세	16~65세	16~24세	16~65세	16~24세
한국	273	293	263	281	30%	63.5%
OECD 평균	273	280	269	271	34%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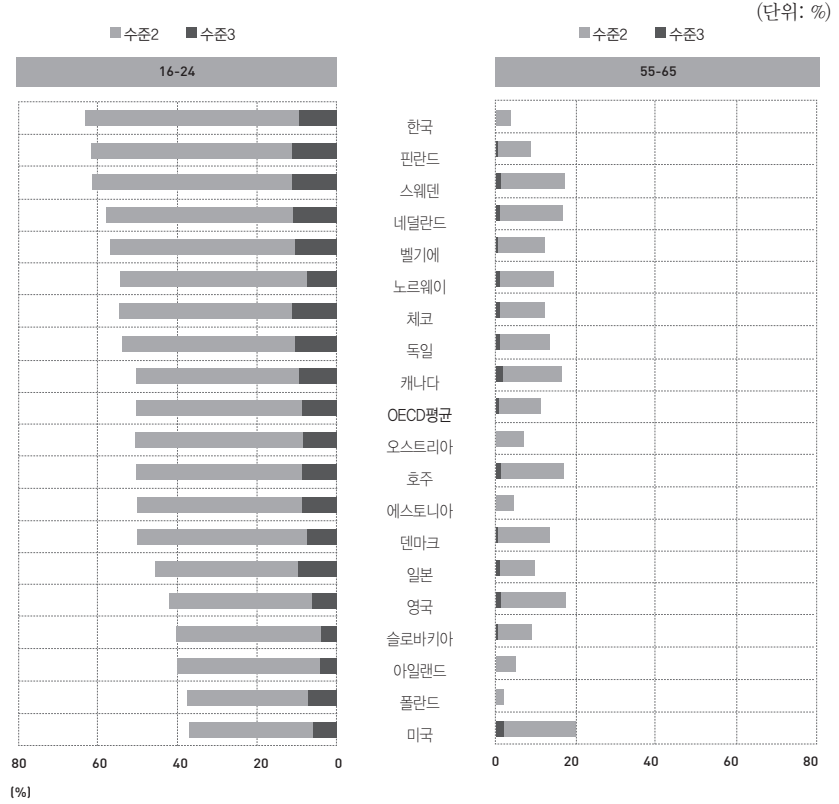
주: 문제해결력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제외되었으므로 평균 점수를 비교하지 않고, 상위수준(2수준 및 3수준)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로 비교.

출처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 반면에 55~65세의 경우,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OECD 평균 11.7%보다 훨씬 낮은 3.9%로서 최하위 수준으로 연령별 격차가 심함.



그림 6. 연령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상위 수준 비율



출처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3.3(p)

(작성: 이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